



지금 이야말로 SDGs의 실현이 필요한 시기

上原茂義

우에하라 시게요시 (Shigeyoshi Uehara)
부사장
IA 시스템 및 서비스 사업 본부장

SDGs: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Luc Boltanski와 Ève Chiapello는 그들의 저서 “The New Spirit of Capitalism (자본주의의 새로운 정신)”에서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그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각 형태는 비판을 필요로 하며, 자본주의는 이러한 비판을 극복함으로써 더 나은 형태로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자는 1990년대 이후 자본주의의 형태를 “네트워크 자본주의 (networked capitalism)”라고 불렀고 그 사회적/예술적 비평을 요구했습니다. 네트워크 자본주의는 독립성을 존중하는 다양한 고용 패턴과 혁신을 강조하는 창의적인 작업 방식을 제공하며, 두 가지 모두 노동자의 인간성 회복과 근로 동기 유지에 유용합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인간 존엄의 영역에 위배되는 활동을 조장하고 이 동성이 높은 소수의 사람⁽¹⁾과 네트워크의 일부가 아닌 대다수의 사람과의 격차를 넓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함은 민주주의 기반의 필수적 존재인 교육 수준이 높은 중산층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은 2015년에 채택되었으며, 두가지 모두 네트워크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구 기후 변화 속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오늘날보다 더 나은 상태로 지구를 남겨 두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다루며, (네트워크의 일부가 아닌 사람들과) 미래 세대를 포함하여 빈곤 예방, 기아 근절, 교육 제공 등의 목표를 포괄적으로 달성함으로써 그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공생하는 목표를 지향합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아서 품위 있는 일에 종사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를 표현합니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먼 미래에나 있을 법한 공상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풍요로움을 위해 우리 후손의 미래를 희생하지 않겠다는 진지한 소망과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비즈니스 프레임워크인 삼중 목표 (triple bottom line)를 바탕으로 사람들은 SDGs를 채택했습니다. 이 정책 프레임워크는 경제적 가치에 사회적/환경적 가치의 새로운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의 자문기구인 ‘비즈니스 및 지속 가능한 개발위원회 (Busines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ttee)’는 SDGs 달성 시 매년 12조 달러에 달하는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환경, 사회, 거버넌스 (ESG) 투자와 친환경 관련 투자가 확대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원하는 경영자들이 함께 일하고 그들의 노력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WBCSD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세계 비즈니스 협의회)에 모였습니다⁽²⁾.

사람들은 SDGs를 비즈니스 기회로 볼 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SDGs라는 용어는 일상 생활에서 보편화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사업 활동을 통해 SDGs 달성을 약속하는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기업인들은 회사 엠블럼 (emblem: 상징) 옆에 17색 배지를 달았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COVID-19로 인한 혼란

그러나 SDGs는 예기치 않은 방향에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전 인류가 싸우고 있는 그림자 같은 COVID-19였습니다. 2020년 3월 초, 전 세계가 확산의 위험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감염된 사람의 수가 몇 주 만에 10,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아시아, 유럽, 북미의 많은 국가들이 경제 활동보다 질병 확산 방지를 우선시하기로 결정한 덕분에 6월까지 감염자 수를 약 10만 건 이내로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³⁾. 그러나 많은 국가들은 추가적인 경제 침체가 다른 위험을 초래할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으며 경제 활동 가속을 위한 폐쇄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2020년 10월, 경제 활동을 유지하면서 확산을 성공적으로 억제 한 도시는 거의 없으며, 많은 도시가 질병의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 또 다른 폐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선거 및 기타 정치 활동이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불행히도 COVID-19는 우리 삶에 계속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COVID-19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나 동일본 대지진의 경우처럼 경제가 갑자기 멈춰 서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제를 억제합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질병의 확산이 끝나자마자 경제가 다시 가동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

를 갖게 되어 빠른 결정과 대응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잠복기는 2주이며 감염된 모든 사람이 증상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감염이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면서 사회 기반 시설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인은 경제활동의 제동과 가속 간의 균형을 이루는 방법에 대한 결정을 늦추고 지연시킵니다. 또한 감염의 영향은 업계마다 다릅니다. 기업은 산업별로 각기 다른 결정 및 대응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는 경영자들에게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 결과 전례 없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COVID-19는 자본주의의 약점을 이용하고 그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SDGs 달성 필요성

자본주의의 결함에 대한 비판과 대응 책으로 자리 잡은 SDGs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COVID-19가 자본주의의 약점을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SDGs 달성을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사회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것”을 비즈니스 목표로 설정하십시오. 불확실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이러한 해결 노력은 대내외적으로 회사의 존재와 비즈니스 방향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으며 모든 이해 관계자가 이 목표 달성을 돕는 것이 그들 자신의 생존을 위한 노력 차원이 되도록 합니다.

물론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기업은 이를 위해 상당한 변화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는 핵심 역량을 재정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은 피상적 자원입니다. 근본적인 마케팅 및 기술 역량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그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기업 문화와 직원들의 사고 방식이 회사의 진정한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수준까지 문제를 논의하고, 회사의 핵심 역량을 내재적 강점으로 재정의하고, 이를 이해 관계자의 관점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또한 이 본질적인 강점은 디지털 변환 (DX)과 통합되어야 합니다. DX는 사람의 개입없이 생태계 전체에서 정확한 정보를 정확한 사람에게 적합한 시기에 적합한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DX는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이 새로운 강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경영진의 비전과 목표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진은 CO2 감축과 같은 구체적인 도전적인 목표를 관리 목표로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한 비전 없이는 지속성장의 메시지가 이해 관계자의 마음에 닿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 모델을 이윤 지향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내외 이해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경영진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비전을 선언해야 합니다.

이해 관계자의 이해와 협력을 얻으려면 마이클 포터 (Michael Porter)의 다섯 가지 힘 (five forces)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공급 업체, 구매자 및 경쟁 업체 간의 분명한 차이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들의 공급 업체와 경쟁 업체가 그들의 구매자이기도 한 복잡한 공급망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매자의 공급망, 즉 구매자의 구매자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복잡한 공급망을 하나의 생태계로 보고 전체 생태계를 개선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결론

2015년 SDGs의 선언 덕분에 2020년에 COVID-19에 맞서 싸울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선언이 COVID-19의 확산을 막기에는 너무 늦었을 수 있습니다. 미래의 사람들이 SDGs와 파리 협정이 채택된 2015년과 COVID-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2020년을 어떻게 되돌아볼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아무도 모릅니다. COVID-19를 포함한 전염병을 종식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되거나 COVID-19로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해 습득한 지혜와 기술을 활용하여, 생태계 형성, 세계 관찰, 경제, 사회, 환경의 삼중 목표 균형을 이루고, 사회적 이슈를 정의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야 하며, 이러한 시도를 생존의 필수 조건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경제, 사회,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풍요롭고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이러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기업인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이 지구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 이러한 일을 해야 합니다.

참고문헌

- (1) Luc Boltanski and Eve Chiapello, “The New Spirit of Capitalism,” Verso Books, 2006
- (2) Chika Furukawa,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and Yokogawa,” Yokogawa Technical Report English Edition, Vol. 62, No. 1, 2019, pp. 1-2
- (3) World Health Organization, Coronavirus disease (COVID-19) Situation Report – 2020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situation-reports> (accessed on August 10, 2020)